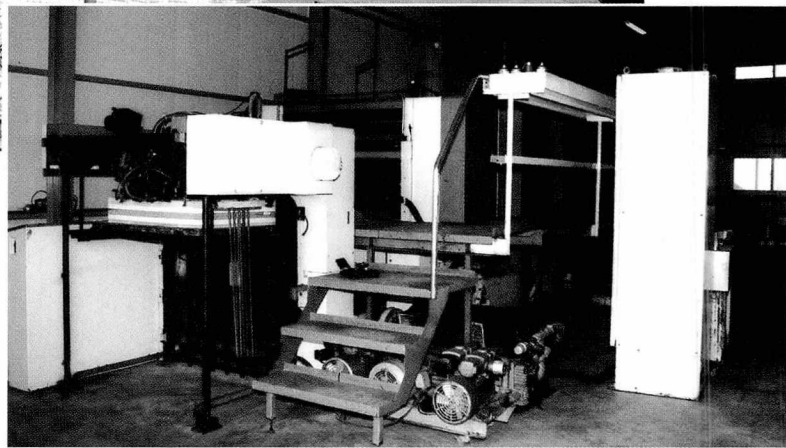


국내에서도 인쇄기 세척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탄생했다.

물론 세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기기 매매와 운송, 해체, 수리, 도색, 조립, 시운전 등을 기종에 상관없이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 4도 컬러인쇄기 20대를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건물(위)과 세척을 기다리고 있는 중고 인쇄기(아래).

드라이아이스

인쇄기세척기술 도입

인쇄기 세척 전문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고 인쇄업계의 새로운 전문업체로서 기업화된 회사는 바로 (주)승화엔지니어링(대표 이용순)이다.

현재 국내에는 수리나 세척 등을 소규모 업체와 프리랜서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많다. 그리고 중고기기 매매상도 있다.

그러나 이들과 차별화 한 승화엔지니어링은 선진 세척기술인 특수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방법과 다년간 인쇄 및

기계 수리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노하우가 합쳐져 생겨난 신생기업이다. 승화엔지니어링은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500여 평에 건평 200평(건물 3동)의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중고기기의 매입과 판매를 위한 보관 공간 확보는 물론 세척이나 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두고 있다. 3동으로 이루어진 공장의 규모는 대국전 4컬러 인쇄기 기준으로 최대 20대가량을 보관 및 수리, 세척할 수 있다.

승화엔지니어링이 세척 전문기업으로 당당하게 업계에 나선 것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직업도 전문 직업으로서 기업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되는 한편, 환경친화적이며 또한 완전 세척을 할 수 있는 선진 세척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승화엔지니어링에서 추구하고 있는 드라이아이스 세척방법은 직경 3mm, 길이 5mm 정도의 알갱이로 이루어진 특수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세척하는

기술. 이를 위해서는 드라이아이스를 뽑아주는 특수 제작된 콤푸레셔도 필요하다. 드라이아이스 세척방법은 기존의 기름세척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써, 독일이나 영국에서 5년 전 개발돼 3년 전부터 본격화된 기술로서 콤푸레셔를 이용해 드라이아이스를 인쇄기에 강하게 뽑아주면 드라이아이스가 기름때나 잔여 잉크에 묻음으로써 급속 냉각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뽑아주게 되면 떨어져 나가게 된다. 떨어져 나간 때나 잉크에 묻은 드라이아이스는 기체로 승화돼 없어지고 잔유물만 남게 되며 이것을 모아 폐기시키면 깨끗하게 마무리된다. 또한 전자장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 세척이 가능하고 녹까지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선진국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세척 기술이다. 그러나 현

장에서는 세척하기가 곤란해 공장까지 운반해 세척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기계를 점검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면에서는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승화엔지니어링은 이름 그대로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기체로 승화시켜 세척하고, 또한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뷰> 이용순 (주)승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인쇄기 관리 철저해야 수명연장”



“인쇄기는 정성들인 만큼 인쇄에 나타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하며 세척 및 수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주)승화엔지니어링의 이용순 사장은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결과로 나온다”고 역설한다.

인쇄업계에서 30여년간 인쇄 뿐만 아니라 기계 수리를 전문적으로 해 온 이사장은 인쇄업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직한 이름이다.

35년 전 이웃집 아저씨의 권유로 인쇄업계에 발을 디디게 된 이사장은 견습공 시절 심한 꾸지람을 당하면서도 인쇄 기술을 익히고자 했으며, 기계에 대한 관심도 각별해 오래 전부터 주위에서 발생하는 잔 고장을 해결해 줌으로써 기계 수리에도 재능을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천직으로 알고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사장은 견습공을 거쳐 공장장 등 인쇄경험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각종 인쇄기를 다양하게 다루어 봄으로써 인쇄 및 수리 전문가가 되었다. 또한 인쇄와 수리하는 후배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해서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다. 단지 IMF 이전에 계획이 있었는데 구체화되면서 문제가 생겨 뒤늦게 시작하게 된 것이 약간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사장은 “항공기 다음으로 초정밀 기계라고 할 수 있는 인쇄기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한스러워 하면서 “이런 고가의 수입품을 함부로 다루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인쇄기에 대한 ‘수명연장의 꿈’을 갖고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선진 세척기술을 배우기

위해 외국에 나가 직접 기술을 배우오기까지 했다.

수리기술에 대해 이사장은 “국내 기술자들은 예전에는 기계를 해체하고 나서 조립하면 부품이 남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모자랄 정도다”고 말했다. 이것은 대충 대충 일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마모가 되거나 분실된 부품을 제대로 맞춰주기 때문에 때로는 모자라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장이 한가지 아쉬워하고 있는 점은 “요즘 기계 일을 배우는 사람들은 기능만 있고 기술은 없는 사람들이 많다. 후배들이 좀 더 관심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다”고 밝혀 국내 수리기술의 향상과는 반대로 새로 배우는 기술자의 부재도 역설했다.

기술과 경험, 그리고 자본이 필요한 이 직업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업다운 기업으로서 이룩한 이사장은 인쇄업계 종사자들에게 “인쇄기 생산을 못하는 나라에서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일이 없었으며 좋겠다. 그리고 세척이나 수리 부분이라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당부와 함께 당찬 포부를 밝혔다.

<윤재호 부장>